

# 광주, 조직개편-정원 조정 개정 조례안 제출

군공향이전과→군공향이전본부 승격... 3급 1명 증원  
4개 실·국, 1개 직속기관 명칭 변경·업무분장도 조정

광주시가 조직개편과 정원 조정 개정 조례에 관련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1~2일 이틀간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긴급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상임위 심의를 거쳐 제1

차 정례회 폐회일인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선, 본청에서는 군공향이전본부가, 직속기관으로는 119특수대응단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사업소로는 광주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와 광주시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플랫폼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여성가족교육국은 여성가족국, 군공향교통국은 교통국, 인공지능산

업국은 인공지능산업실, 경제창업실은 경제창업국, 공무원교육원은 인재교육원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의 지방자치분권 업무와 여성가족교육국의 인구정책총괄 업무, 민주시민행복국의 국제교류·협력 업무가 모두 기획조정실로, 투자유치기획 업무가 경제창업실에서 인공지능산업실로 이관되는 등 11개 업무의 주무부서가 변경됐다. 군공향이전본부 신설로 본청 조직은 14실국 73과에서 1본부가 늘고 1과가 줄어 15실국 72과 체제로 바뀌

고, 총정원은 4196명에서 4197명으로 1명 증원 조정됐다.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각각 2명씩 증가한 반면 합의제 행정기관은 3명이 줄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사전 의견수렴 여부를 놓고 시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이견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중복 기능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운영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 전남 다문화 아동인구 비율 전국 최고...지속적 증가

전남의 다문화 아동인구 비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전남(25만명), 전남(24만9000명), 광주(23만3000명), 제주(11만5000명) 순이었다. 2015년과 비교해 전북(-6만9000명), 광주(-5만9000명), 전남(-5만7000명), 제주(-7000명)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아동인구 비율은 제주(17.0%), 광주(15.8%), 전남(14.0%), 전남(14.0%) 순으로 2016년 이후 아동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아동이 1명인 가구 비율은 광주(47.6%), 전북(47.4%), 전남(47.1%), 제주(47.1%) 순이며, 호남·제주지역 모두 전국(51.1%) 대비 낮았다. 같은해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 비율은 제주(52.9%), 전남(52.9%), 전북(52.6%), 광주(52.4%) 순이며, 호남·제주지역 모두 전국(48.9%) 대비 높았다. 2021년 평균 아동 가구원 수는 제주(1.67명), 전남(1.65명), 전북(1.64명), 광주(1.62명) 순이었다. 2021년 다문화 아동인구 비율은 전남(6.8%), 전북(5.7%), 제주(4.8%), 광주(3.3%) 순으로 전남과 전북은 전국 1위, 2위를 기록했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대사 위촉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대사 위촉과 유관기관 협약식이 7일 오후 도청 서재실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지사,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목포대·순천대 “국립의대 설립 공동협력” 선언

의대 유치로 의료여건 개선·지역소멸 대응 다짐

전남도는 7일 도청 귀빈실에서 국립 목포대·순천대와 함께 도민 의료여건 개선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에 공동협력키로 선언했다. 공동 선언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 공동협력 선언문에 서명했다. 전남도·목포대·순천대는 선언문을 통해 '전남도민의 의료여건 개

선과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 타개에 앞장',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양 대학 간 역량집중·상호협력 강화',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시 의대 신설 반드시 포함' 등을 결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회는 조만간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동협력 선언'은 정부와 의료계에 도내 의대 설립의 절실함을 한목소

리로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지역 양대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에 국립의대가 설립되도록 함께 역량을 집중하고 상호 협력키로 해 대학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한 공동 전략 모색이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시 의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이 반드시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양 대학 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결집해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 “다양한 시민 요구, 섬세하게 다가가야” 강기정 시장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기정 시장은 7일 “변화한 사회, 시민들의 다양해진 요구에 행정도 더 섬세하고 창의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다. 실에서 열린 정례회를 통해 “시청에 등장한 다양한 신발은 시청에 다양한 개성을 가진 직원이 등장했다는 뜻일 것”이라며 “세태도 다른 가치관도 다른 직원들이 함께 일할 때 시너지를 내기도 하지만, 어려움도 많을 것이다. 변화한 상황에 맞는 태도와 기술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개성을 존중받는 것은 누구나 환영하는 일이다. 그러나 모두의 개성이 존중받으면서도 함께 공존하는 일에는 섬세한 기술과 전에 없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시민들 역시 다양해지고 있고, 사회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적이 다른 시민이 늘어나고, 가족 구성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시민들 사이의 생각 차이도 분명하다.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변화의 방향은 정해졌다. 어떻게 적응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과거의 행정이 관리가 가까웠다면, 오늘날의 행정은 서비스에 가깝다. 시민들의 다양해진 요구에도 응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시민들의 서로 다른 필요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일이 오늘의 행정에 주어진 과제이다”고 밝혔다. /조선주 기자

## 유기농 생태마을 ‘49곳→100곳’ 늘린다

전남, 상반기 4곳 신규지정 총 49개 마을로 늘어나  
전남도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주민 소득증대 성공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에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남도는 '상반기 유기농 생태마을' 4곳을 신규로 지정해 현재 49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민선8기 도지사 공약에 따라 2026년까지 100곳으로 확대 육성한다고 7일 밝혔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10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천 마을 중 친환경인증 면적이 10ha 이상인면서 유기농 인증 면적 비율이 30% 이상으로 생태 환경이 잘 보전되고 친환경 실천 의지가 강한 마을을 지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중순까지 접수해 5월 하순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현장평가를 거쳐 여수 옥죽마을, 장흥 모령마을, 영암 선암마을·송내외마을을 4곳을 신규로 선정한 것이다. 이번 지정된 4개 마을에는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체형시설 구축 사업비를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김도기 기자

## “한전공대 교각살우 안돼...국가 지원 필요”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전 기 획재정부 2차관이 한국에너지공과 대학(한전공대) 출연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 “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을 감퇴시키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 이사장은 7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공대를 방문해 윤의준 총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전공대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포항공대나 대전 카이스트와 같은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여야 정치권, 정부가 합심해 예산지원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이사장은 또 “모태인 한전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한전공대도 최대한 자구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예산 삭감이 학교설립 취지와 국제경쟁력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가선 안된다”며 “위기 국면을 정제성과 위상을 확고히 하는 전화위복 계기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형안 기자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2023.4.1.~10.31.

정원에 산다 함께 살아요

“힐링영광”

영광군

**임시총회 개최 알림**

迎日鄭氏 易間齋公派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기 : 2023년 6월 25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

◆ 장소 : 곡성 봉조리 446 (제실)

迎日鄭氏 易間齋公派 宗中 회장 태봉

두근두근 낭만여행

**“힐링영광”**

영광군

“힐링영광”은 영광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힐링여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힐링여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힐링여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힐링여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집 정수기 필터**

필터관리 직접

우리 집 정수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최고 50% ~ 최저 30%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필터 하나에 1만원!!**

(단, 기능성 알칼리 이온수기 필터 제외, 10%)

☑모든정수기 : 웅진, 청호, 아쿠아, 지엠, 대우, 한일, 코오롱 등  
☑이온수기 : 바이온텍, 동양, 삼덕오존알카 등

우리집 정수기 좋은물! 필터관리가 소중한입니다.

1단계 전처리 침전필터(Sediment Pre-filter) : 녹물, 흙, 모래, 오염물질 제거. 3개월 사용.  
2단계 전처리 카본필터(Pre-Carbon Filter) : 염소, 발암물질제거, 냄새제거. 6개월 사용.  
3단계 역삼투압필터(Reverse Osmosis Filter) : 세균, 미세한 불순물제거. 15~24개월 사용.  
중공사막필터(Ultra Filtration Filter) : 세균, 미세한 불순물제거. 1년 사용.  
4단계 포스트카본(Post Carbon) : 잔류 유해물질 제거, 물맛을 좋게한다. 9개월 사용

정수기필터 백화점 광주전남지사  
주문및상담 062) 361-5456, 011-390-2229